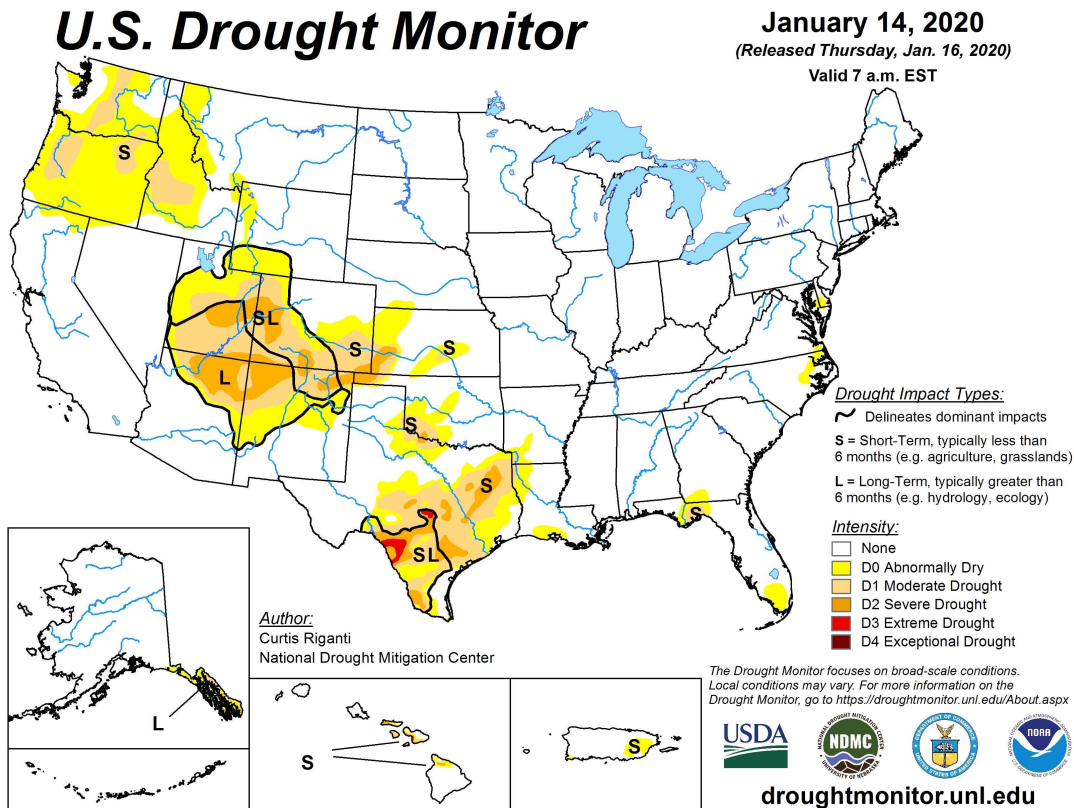


1월 2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3)

□ 미국 기후 현황(1/12~1/18)

일주일이 조용히 시작되더니, 폭풍 전선이 남부와 중서부 아래쪽에 또 다른 폭우를 내렸다. 비는 미시시피 하류에서 동부 옥수수 벨트까지 이미 부풀어 오른 강으로 흘러 내려 저지대에서 홍수를 지속시켰다. 먼 북쪽은 주 후반에 불어온 폭풍으로 눈발이 휘날리면서 중서부 위쪽 일부에서 눈보라가 발생했다. 미네소타 서부, 아이오와 북서부, 다코타 동부는 가장 혹독했던 열마의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곳의 강설량은 6 인치를 초과했고 시속 60 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가축에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시골 지역 여행은 급감하였다. 서부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남부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10-15° F 이상 높았고, 몬타나 일부는 평년보다 20° F 이상 높은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다. 실제로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 지역은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몬타나에서부터 미네소타까지 넓은 지역에서는 기온이 최소 한번은 -20° F 아래로 떨어졌다. 아이오와 남부처럼 먼 남쪽에서는 수치가 0° F 또는 그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플로리다 반도, 고원, 사막 남부 전역은 날씨가 평온했지만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는 대조적으로 소나기가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는 초기의 강수 부족 상태에서 계속 회복했고 북서부의 많은 강 유역들은 눈덮임이 이 시기의 연중 평년 수치에 접근하고 있었다.



□ 세계 기후 현황(1/12~1/18)

■ 유럽: 서부 및 중부 유럽 전역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부 재배 지역의 상태는 건조하고 따뜻했다. 이전에 남중부 유럽을 가로질렀던 광범위한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독과 폴란드에서부터 발칸 반도까지 하늘이 화창해졌다. 독일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까지 이런 건조한 날씨에 계절을 벗어난 온난화 (평년보다 3-8° C 높은)가 동반되면서 이들 북부 재배 지역은 보호성 눈 덮임도 없이 별다르게 눈에 띄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되었고 겨울 작물의 내한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발칸반도도 눈이 없기는 했지만 다소 시원한 조건들 (평년보다 최대 2° C 낮은)이 이어졌다. 반대로 서유럽과 중유럽에는 점차 불안정한 날씨가 퍼져서 대서양과 북해에 인접한 지역들에는 큰 비 (25-100 mm)가 보도되었다. 먼 내륙은, 중부 스페인에서부터 서독까지 비가 좀 더 가볍게 (2-10 mm) 내렸다. 이와 비슷하게 이탈리아 서부는 알맞거나 큰 소나기 (10-40 mm)가 내린 반면 이탈리아 동부에는 좀더 가볍게 (5 mm 이하) 내렸다. 겨울 작물 전망은, 가뭄 때문에 독일에서 토양 수분 공급량이 봄 성장에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 호주: 남퀸슬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의 많은 부분에 널리 적시는 비 (15-50 mm 이상)가 내려서 면화와 수수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작물의 상태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가뭄의 현 심각성을 감안하면 이번에 내린 비는 건조지 작물들의 불량한 수확량 전망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비는 추가적인 물 요구량을 줄여서 관개 작물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가뭄으로 줄어든 저수지와 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할 필요를 줄여 주었다. 동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 근처여서 최대 기온이 대략 섭씨 30도대에 있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의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 소나기가 적당하거나 강하게 내려서 여름 곡물, 유지 작물들, 면화에 대체로 유리한 조건이 유지되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북부 농업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서 총강수량 25-50 mm의 비가 내려서 지난주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분이 증가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주에 시기적절한 소나기가 내린 후에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부 농업 지역은 다시 보다 건조한 상태 (총 10 mm 이하의 강우)로 되돌아갔다. 주간 평균 기온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평년보다 1-2° C 낮았고 다른 곳에서는 평년 근처 또는 평년보다 높았으며 라 팜파와 남서부 부에노스아이레스처럼 먼 남쪽은 낮 최고 기온이 다시 35° C까지 올라갔다. 먼 북쪽의 전통적으로 따뜻한 곳들에서는 최고 기온이 40° C 이상에 도달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16일 현재 옥수수과 콩은 각각 92 % 및 94 %가 파종되었고 면화는 99 %가 파종되었다.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표 지역으로서 탄달과 트레스 아로요스에는 2차 작물 콩이 각각 82 % 및 59 % 파종되었는데 이곳은 계절 강우가 날씨에 맞게 내리지 않아서 추가 수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밀은 98 % 수확되어서 작년 속도 (99 %)보다 약간 뒤쳐졌고 해바라기는 13 % 수확되었다고 산타페와 차코에서 활동이 보고되었다.



■ 브라질: 계절성 강우가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많은 생산 지역에서 대두 및 기타 여름작물에 대체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했지만 건조 포켓이 동쪽 구역으로 되돌아왔다. 마토 그로소와 토 칸틴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25-50 mm, 지역적으로 100 mm까지)가 산발적으로 계속 내렸다. 지난주부터 마토 그로소에서는 양과 면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좀더 건조한 상태가 야외 작업에 도움이 되었고 강우가 옥수수 같은 2차 작물의 발아에 시기적절하게 내렸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월 17일 현재 콩은 6 % 수확되었고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2 % 및 28 % 파종이 끝났다. 좀 더 건조한 상태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대 중간 및 상위에 도달하면서) 동쪽으로 바히아와 미나스 게라이스까지 확대되면서 옥수수와 콩의 성숙을 앞당기고 있었고 대신에 잠재 수확량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남쪽으로 소나기가 좀더 일정하게 내렸지만 낮 최고 기온은 이따금씩 30도대 중간까지 올라갔고 작물의 수분 수요량은 계속 높았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의 파종은 1월 16일 현재 사실상 완결되었고 80 %의 옥수수가 생식기-종실비대기에 도달했으며 콩은 44 %가 개화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다. 파라나에서는 1월 13일 현재 1차 작물 옥수수와 콩 둘 다 약 90 %가 생식기-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2차 작물 옥수는 1 % 파종되었다고 보고되었다.